

2023-06-19 (2023-22호)

06월 19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단기 박스권 탐색전... 파월 발언 · 무역적자 개선 확인하기

서울, 6월1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단기 박스권 탐색 과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레인지는 1,260-1,300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과 유럽(ECB) 및 일본은행(BOJ) 정책 등 굵직한 정책 이벤트는 일단락됐지만 국제 금융시장은 이렇다할 방향성을 굳히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금주 중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시장은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연준은 금리 점도표를 통해 연내 추가 2회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도 앞으로 나올 데이터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과 연준의 적지 않은 간극 속에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시장은 정책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주 강세 랠리에 힘입어 14개월 만의 최고치로 오른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단기 행보 따라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증시와의 상관성을 높여온 원화 단기 행보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 달러/원 환율은 2021년 초 이후 처음으로 5주 연속 하락했다. 주거래 박스권도 한 단계 하향조정됐다는 진단과 함께 아직 환율의 단기 저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지난 주 환율이 1,260원대 안착에 실패하고 반등한 만큼 이 부근에서 단기 지지력을 형성할 가능성은 엿보인다. 달러 숏 심리가 잠시 주춤해진 상황에서 장중 수급 영향력은 좀 더 확대될 여지는 있다.

주 초 중국의 대출우대금리가 발표되고, 영국은행의 정책회의가 예정돼있다. 한편,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현황과 무역수지도 나온다. 10일까지 개선된 무역적자 흐름이 20일 기준으로도 확인된다면 수급 개선 기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국내외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6월19일(월)

-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10:3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11:00)
-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14:00)
- ⊙ 한국은행: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 Headline, Core, and Underlying inflation (BOK이슈노트 2023-19) (14:00)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14: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14:00)

6월20일(화)

- ⊙ 기획재정부: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07: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기업인 간담회 참석 (07:30)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녹색금융 컨퍼런스 (09:3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10: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1:00)

6월21일(수)

- ⊙ 관세청: 6.1~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2023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8: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09: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11:00)
-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BIS 연차총회」참석 (12:00)

6월22일(목)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10:00)
- ⊙ 기획재정부: 1차관·2차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10:00)
- ⊙ 기획재정부: 제2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16:30)
- ⊙ 기획재정부: 2023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6월 발행실적 (17:00)

6월23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08:00)
- ⊙ 한국은행: 2023년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6월19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6월19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6월	51	50
6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	6월		3.65%
6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	6월		4.30%
6월20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YY SA	4월		0.4%
6월20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4월		45.00B
6월20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5월	1.425M	1.417M
6월20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5월	1.400M	1.401M
6월21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제조업지수	6월		6
6월21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6월16일 주간		208.8
6월22일	21:30	미국	경상수지	1분기	-216.9B	-206.8B
6월22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장 청구건수	6월12일 주간	260K	262k
6월22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5월		0.07
6월22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5월	4.25M	4.28M
6월23일	00:00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6월		-2
6월23일	08:30	일본	CPI YY	5월		3.5%
6월2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6월		50.6
6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점정치	6월	48.3	48.4
6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6월	54.0	54.9
6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종합 PMI 잠정치	6월		54.3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6월19일(일)

- ⊙ 휴장국가: 미국

6월20일(화)

- ⊙ 호주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바르셀로나 경제대학원 하계 포럼에서 프레젠테이션 (오후 9시30분)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6월 비제조업 기업 전망 서베이 (오후 9시30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방은행 주최 컨퍼런스 참석 (21일 오전 0시45분)

6월21일(수)

- ⊙ 일본은행(BOJ) 4월27-28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오전 8시50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 (오후 11시)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월스트리트저널 글로벌푸드포럼 Q&A 세션 참석 (22일 오전 1시25분)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주최 컨퍼런스 환영사 (22일 오전 5시)

6월22일(목)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아일랜드 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5시)
- ⊙ 영란은행 금리 발표, 의사록 공개 (오후 8시)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주최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10시55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 (오후 11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주최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1시)
- ⊙ 휴장국가: 중국, 홍콩, 대만

6월23일(금)

- ⊙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아일랜드 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 (오후 6시15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조지아대 기업 CFO 라운드테이블 참석 (오후 9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주최 컨퍼런스 폐회사 (24일 오전 2시40분)
- ⊙ 휴장국가: 중국, 대만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영란은행 정책회의

영란은행이 오는 22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년 만의 최고치인 4.75%로 25bp 인상할 것으로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하고 있다.

임금 증가율은 팬데믹 기간 제외 사상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고 고용시장도 타이트한 가운데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의 4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시장은 금리 인상 베팅을 확대했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주 50bp 인상 가능성도 거의 20%로 반영하고 있다.

### ⊙ 주요국 PMI

이번 주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발표된다.

지난 5월에는 대다수 지역 PMI가 부진을 보였다. 미국의 제조업은 7개월 연속 수축됐고, 유로존의 제조업 수축세는 심화됐다.

6월 PMI가 또 부진하게 나타나면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글로벌 경제 둔화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게 될 것이다.

### ⊙ 호주 중앙은행 회의록

오는 20일에는 호주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된다.

투자자들은 6월 의사록을 통해 향후 금리 인상 정도를 가늠할 전망이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호주 중앙은행이 올해 9월 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6일 기준금리를 4.1%로 25bp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 블링컨 訪中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1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국무장관의 5년 만의 방중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으며 미국에 있어 더 중요한 외교적 이벤트는 22일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이라고 밝혔다.

오는 21~22일에는 런던에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 ⊙ 튀르키예 중앙은행 금리 결정

하피즈 게예 에르칸 신임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가 22일 자신의 첫 금리 결정 회의를 주재한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8.5%인 금리가 2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달 초 재무장관에 이어 중앙은행 총재도 친시장 성향을 임명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금융당국, KOFR OIS 거래 개시 준비... CD 대체 이자율스왑 준거금리 활성화 대책 조율

서울, 6월16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Overnight Index Swap)의 실질적 거래 개시와 활성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

16일 스왑시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에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뿐 아니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금융중개(KMB) 관계자들을 총망라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KOFR OIS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전 대책을 조율했다.

KOFR은 익일물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금리다. 2012년 리보 조작사건 이후 세계 주요국이 무위험지표금리(RFR)를 개발하자 한국도 지난 2021년 KOFR을 선보였다. KOFR은 대체지표금리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와 함께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준거금리로 활용된다.

OIS는 KOFR을 준거금리로 활용하는 IRS 거래다. 현재 IRS 준거금리로는 CD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KOFR OIS 금리 고시는 KMB가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 없이 CD 기반 IRS에서 일정 스프레드를 차감해 산출하고 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KOFR OIS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어떤 과정을 밟을지 시장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외에서 KOFR OIS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장내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하기 위해 거래소가 초기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CD 기반 IRS 거래를 인위적으로 KOFR OIS로 전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IRS 거래의 준거금리로 어떤 금리가 선택되든 시장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주로 RP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사들은 RP 기반의 KOFR OIS에 대한 선호가 은행권보다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참가자들은 KOFR OIS의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KOFR OIS 거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고 시장참가자들과 적극적인 의견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편집 박예나 기자)

((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시장진단)-돈보이는 원화 차별화 행보... 해외 자회사 배당금 등 수급 변수 급부상

서울, 6월1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시장 수급 변화 기대 속 달러/원 환율은 3개월 만의 최저치로 내려섰다.

13일 개장 직후 환율은 3월 2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281원선까지 밀렸다. 월간 기준으로는 현재 약 3%대 내려 작년 12월 이후 최대 월간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원화와 코스피와의 상관성이 0.9 수준(최근 20영업일 기준)까지 확대된 가운데 최근 반도체 주가 강세와 이에 따른 외인 수급이 원화의 상대적 차별화를 견인하는 재료로 꼽혀왔다. 이렇다 보니 원화는 위안과의 동조성이 급격하게 낮아졌고 이에 위안/원 환율은 180위안을 밑돌며 2021년 8월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6월 금리 동결 전망 속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앞서 반영된 게 주요인이지만, 일방적인 달러 수요에 치중된 외환시장 수급 구도에 적잖은 변화도 엿보인다.

### ▲ 수급 무게중심 균형 찾아갈까

무역수지가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였지만 올해 1월 사상 최대 기록 이후 적자는 개선세다. 이달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4억달러로 전년 동기 60억달러, 전월 동기 42억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국회 질의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5월이 지나면 서서히 개선되고 하반기, 특히 4분기 정도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상수지 개선 수급 요인도 뒷받침되고 있다. 대규모 외인 배당으로 적자폭 확대 우려가 제기됐던 4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7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영향도 있지만, 국내 법인의 배당소득 확대로 인한 배당소득 덕에 8억달러 적자에 그쳤다.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의 95%는 비과세되는데 이에 따른 외환수급 영향이 적지 않다.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배당소득은 108억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품수지 적자 93억달러를 웃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12일 해외 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리고,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59억달러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배당금 79% 상반기 내 본사로 송금하고 나머지 21%도 올해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같은 수급이 그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장참가자들은 진단한다. 현대차그룹이 밝힌 상반기 배당 유입액 중 70% 이상이 처리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월말까지 잠재 물량이 남아있어 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마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한편 달러 수요 쪽으로 치우친 외환수급 완화를 인정하면서도 원화 추세를 예상하기는 이르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른 은행 외환달러는 "연초 수준은 아니지만 외인 주식 순매수 상황과 국내 해외기업의 배당 송금 등이 상품수지 적자를 상쇄하고 있다. 이에 일방적인 수요 우위 수급에서는 벗어나긴 했다"면서도 "이들 수급 요인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성격의 수급으로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프리뷰)-영란은행, 인플레 지속에 이달 금리 25bp 인상 전망

런던, 6월16일 (로이터) -

영란은행은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년 만의 최고치인 4.75%로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발표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4월까지 3개월간 기본급 상승률은 7.2%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데이터가 왜곡된 기간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이에 시장은 금리 인상 베팅을 확대했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는 영란은행이 올해 금리를 최고 6%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베팅까지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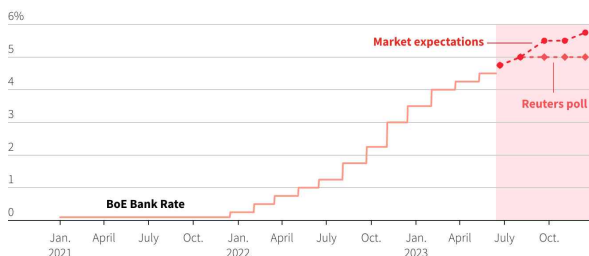
앞서 3주 전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7%로, 예상보다 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캐서린 나이스 PGIM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모든 중앙은행들의 상황이 다 어렵지만 영국은 특히 더 그렇다"면서도 영란은행이 시장에 반영된 만큼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주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영란은행의 금리가 8월이나 9월 5%로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 Bank of England rates heading towards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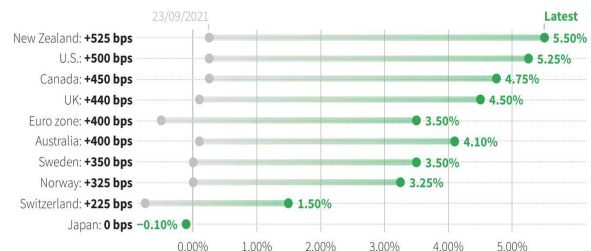
Financial markets see the BoE to raising interest rates to 5.75% by December, while economists polled by Reuters expect them to peak at 5%.



Note: Reuters poll conducted June 12-14; market expectations based on Refinitiv data at 1045 GMT on June 15. Source: Refinitiv Datastream, Eikon | Reuters, June 15, 2023 | By Sumanta Sen

#### The race to raise rates

Change in policy rates by central banks overseeing the 10 most traded currencies since the start of the interest rate tightening cycle in September 2021.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ne 16, 2023 | By Vincent Flasseur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